

가족의 변화와 가족학의 과제

A Study of the Changes of the Family and the Tasks of Family Studies

전 영 자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Jeon, Young Ja
Dept.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 Inje Univ.

Abstract

Every part of our society changes rapidly in the era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t is needed to change the study area following the social change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look at the changes of family studies as a part of living science.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of families, predicts the outlook of future families, and defines the tasks of family science. In spite of some negative thoughts about future family, most of family scientists have very optimistic prospects. They predict that the importance of family will increase in future. Therefore, there are lots of tasks we have to do as family professionals. Among them, this paper focus on family life education and family counselling. People need to study family life education for preventing family problems and they need family counselling to overcome family crisis. So the family scientists should develop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s and family counselling theories and skills.

Key words : family change, family life education, family counselling

I. 서론

많은 사람들의 흥분과 기대 속에 새 천년이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저마다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수립에 부심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자기 분야의 21세기 모습들에 대하여 전

망해보고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모색하는 가운데 있다. 현재 우리는 어제까지만 해도 유용하던 정보와 지식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사회로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인류의 역사를 하루 24시간에 비유하면서, 농경사

Corresponding author : Jeon, Young Ja
Tel. (0525) 320-3245, Fax. (0525) 321-9550
E-mail : homejeon@ijnc.inje.ac.kr

회가 차지해 온 시간이 20시간, 산업사회가 차지해 온 시간이 3시간 57분, 그리고 현재의 정보화사회가 차지하는 시간이 나머지 3분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마지막 3분으로 축약된 정보화사회는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한 시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Toffler는 농경사회의 출현을 제1의 물결,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사회의 이행을 제2의 물결로, 그리고 전자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보사회를 제3의 물결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정보사회로의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체제는 물론 기업이나 개인 및 가족의 생활양식까지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견했다. 정보화 사회의 빠른 변화에 따라 우리 생활과학분야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생활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가족학 분야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즉, 21세기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우리 가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가족의 변화하는 특성과 지속되는 특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가족의 변화하는 특성은 지난 30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형태면과 기능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아울러 현대가족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미래의 가족을 예측해 보는 가운데 가족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과제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II. 가족의 변화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가족의 모습이나 기능도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오늘날엔 가족형성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자체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부여하기보다는 하나의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져 가고 있다. 이와같이 결혼에 대한 거부, 이혼율의 증가, 출산통제의 증가 및 유전공학의 발전, 남녀간의 관계변화 등 가족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출현함에 따라 가족에 대하여 본질적인 질문들이 제기되기도 한다. 즉, 가족은 계속 존재할 것인가, 혹은 소멸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족은 존속될 것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20세기 후반 한국가족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면 서구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됨으로써 서구에 비해 그 변화속도가 느리거나 다른 양상을 보이는 면도 있으며, 시대의 변화나 동서를 막론하고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결혼과 가족의 변화하는 특성과 지속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의 변화하는 특성

1970년대 이후로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족세대가 단순화되며, 가족의 유형은 다양해지고 있다.

평균 초혼연령은 상승하고 자녀수가 감소하며 평균수명이 증가됨에 따라 가족주기가 달라져 왔으며, 가족안정성이 약화되어 이혼율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점차 빨라지고 있다. 특히 신세대층을 중심으로 혼인과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표 1〉 가족형태의 변화

가족형태의 변화	변화내용
초혼연령의 증가	평균초혼연령 : 남 27.1세(1970) → 29.0세(1998) 여 23.3세(1970) → 26.2세(1998)
출산을 감소	평균자녀수 : 6.0명(1970) → 1.48명(1998)
가족세대의 단순화	확대가족의 비율 : 23.2%(1970) → 11.6%(1995)
가족형태의 다양화	편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동거가족, 독신가족 등
이혼율의 증가	조이혼율 : 0.7(1970) → 2.6(1998)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려는 노력보다는 무조건 이혼으로 끝내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전병재 외, 1994). 결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만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결혼적령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1970년에 남자의 평균 초혼 연령이 27.1세, 여자 23.3세이던 것이 1990년대 말에는 남자 29세, 여자 26.2세로 증가하였으며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결혼이 인생의 필수 과정이 아니라 선택으로 여기는 생각과 더불어 나타난 현상이라 하겠다. 출산율의 경우 1970년에 평균 자녀수가 4.5명이던 것이 1980년에 2.7명, 그리고 1990년에 1.6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1998년에는 처음으로 1.5명 이하 수준(1.48명)으로 떨어졌다. 또한 한자녀만 낳은 후 단산하겠다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자발적 무자녀가정도 나타나고 있다(경제기획원, 1991: 유영주 외, 1995: 조선일보 1999년 8월 22일).

가족형태에 있어서는 확대가족이 더욱 줄어들고 핵가족이 보편화되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편부모 가족의 증가가 가장 대표적인 변화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유영주 외, 1995).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편부모가족의 발생원인 중 이혼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은 배우자와의 사별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4년에는 사별에 의한 편부모가족의 발생율이 84%이고 이혼에 의한 편부모가족의 발생율은 6%였으나 1995년의 경우 사별에 의한 편부모가족이 64.7%로 줄어든 반면 이혼에 의한 편부모가족은 20%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편부모가족 외에도 미혼모가족, 동거가족, 독신가족 등의 가족형태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태도변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혼전 성관계를 허용하는 태도는 1970년대 무렵부터 계속 있어온 현상이지만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결혼할 사이에 적용되어 성이 결혼으로부터 유리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결혼 후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부정

적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이 결혼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성에 대한 이러한 태도 변화는 혼외 성관계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한 조사에서는(1998년 9월 24일 중앙일보) 여성 응답자의 22.5%가 혼외 성관계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뿐 아니라 1990년대 중반부터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표하거나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성에 대한 기존의 태도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서선희, 1999).

최근에 와서 이혼율의 급증은 가장 큰 가족문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1999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98년에는 인구 1000명당 2.6쌍이 이혼하여 97년(2.0쌍)보다 30%가 급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혼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남자는 40대 전반, 여자는 30대 후반으로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0.1세, 여자는 36.5세로 나타났다(조선일보, 1999년 8월 22일). 이러한 숫자상의 이혼율 증가 뿐 아니라 이혼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 이혼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던 과거의 태도는 줄어드는 대신, 이혼을 불행한 결혼생활을 해소하는 하나의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출판집단 사잇소리, 1993). 이혼에 대한 인식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보수적이어서 유부남의 68.8%, 이혼남의 41.4%가 이혼에 반대를 한 반면 유부녀는 62.5%가 이혼에 반대했지만 이혼녀의 경우 반대율이 28.3%로서 이혼남과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족의 기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나 대체로 경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종교적 기능, 오락적 기능, 교육적 기능, 애정적 기능 등으로 나뉜다. 과거에는 이러한 기능을 모두 가족이 담당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많은 부분이 약화되거나 축소되었다(이영숙·박경란·전귀연, 1999, p. 16).

가족기능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가족 내에서의 생산기능의 상실 또는 약화와 소비기능의 강화라는 경제공동체의 기능변화를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사노동의 사회화, 상품화, 기계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내에서의 자녀양육과 교육의 기능은 약화되었고 학교교육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또한 최근에 사회문제

〈표 2〉 가족기능의 변화

가족기능의 변화	변화내용
경제적 기능	생산기능의 약화 및 소비기능의 강화
가사노동	가사노동의 사회화·상품화·기계화
양육기능	자녀양육기능 약화
교육기능	학교교육 기능의 강화
보호적 기능	노인보호 및 부양기능 약화
종교적 기능 및 오락기능	종교적 기능 및 오락기능의 사회화

대두되고 있는 노인보호 및 부양의 기능은 상당히 약화되어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종교적 기능 및 오락의 기능들은 모두 사회화되어 현대가족은 휴식의 기능과 자녀출산 및 애정의 기능정도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본다(유영주 외, 1995).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결혼과 가족에서 나타난 변화된 특성들은 초혼연령의 증가, 출산율의 저하, 이혼의 증가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가족기능의 약화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하는 특성이 있는 반면, 변화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는 특성 또한 존재한다.

2. 가족의 지속적인 특성

한 인간을 가족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가족이란 밀접하다. 우리는 가족 속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자라나고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여 또 다른 가족을 형성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겨왔다(김유숙, 2000). 과거에 비해서 독신가족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이혼이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려 하고, 자신의 결혼이 일생 동안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으며 배우자와의 이혼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많은 부부들이 평등한 부부관계를 원하고 있지만 평등함의 의미는 가정 내에서 부부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이나 책임을 함께 수행해 감을 의미한다.

또한 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즉 자발적

무자녀가족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부부들은 여전히 자녀를 원하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을 통해 종족과 가문의 유지를 원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는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한편 맞벌이가족이나 주말부부가 증가함으로써 부부가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부관계에 몰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부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확대 친족과의 정서적 유대를 지속함으로써 필요시 언제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부는 그들의 태도와 행동의 기초가 되는 정신적 신념이 포함된 공통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체계는 자녀가 생기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중요하게 부각된다(유영주 외, 1995).

이상과 같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특성 가운데에서도 변화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하고 자녀를 낳으려 하며 이혼을 매우 힘든 일로 생각하고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에 힘쓴다는 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3. 미래가족에 대한 전망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21세기의 가족, 또는 더 나아가 미래의 가족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일부는 가족의 존속여부 조차를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바로 가족의 역사였으며 인간이 존재하는 한 비록 그 형태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는 있을지라도 가족은 존속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21세기의 가족은 그 변화의 폭이 클 뿐 아니라 속도가 가속화되어 변화의 양상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가족이라는 현상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지 정보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래 가족생활의 변화에 대해 김정옥(1999)은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첫째, 가족생활을 조직하는 대안적 형태들이 다양해질 것이다.

가족을 형성하는 생물학적 기초와 환경적 조건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형성되던 일부일처의 핵가족 중심의 가족이 독신, 동거부부, 계약결혼, 동성애관계 등의 다원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원적 가족은 어떤 구성이 좋은 가족인지에 대한 이상을 제시하지 않고 개인적 만족과 함께 융통성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는 어떤 가족구조가 기본 형태가 될 지 말할 수 없고 유동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된다고 해도 이들 가족생활양식들은 자녀출산과 양육, 가치와 문화의 세대간 전이, 감정적 유대관계, 갈등과정 등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떠한 형태에서든지 가족 영역이 지속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정보화 및 전자 시대에는 인간관계 유형이 가족관계 중심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생활의 상호작용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컴퓨터를 통한 직업활동의 증가로 직장과 가정의 구별이 없는 전자주택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따라서 인간 상호작용도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인간관계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 인터넷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지를 시험해 보는 것은 인간 상호작용의 전자화를 예고하는 전조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호작용 유형은 출퇴근 시간의 절약, 대인관계에서의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 여가시간 증가 등의 이점이 예상되기도 하나 정서적 친밀감 공유 대상의 축소로 인한 단절감 내지는 소외감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이와같이 대면적 인간관계가 제한될 경우 가족은 정서적 유대감, 상호 공유된 정체감, 애정, 지지받는 느낌

등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셋째, 여성의 사회활동 범위와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산업화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여권운동과 더불어 더욱 증가하였다. 앞으로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노동시장의 요건이 체력보다는 지식과 창조성을 요구하므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변화의 흐름에 병행하는 평등주의적 가족이념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과학화, 육아 및 가사노동 전반에 대한 부부역할의 공유, 그리고 이를 지지해 줄 사회적·문화적·정책적 제도의 정착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미래가족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 미래가족의 바람직한 가족관계의 정립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의도적 가족의례의 창출을 제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즉 가족유형의 다원화 현상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지침을 제시해 주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성공적인 가족생활을 위해서는 가족역동의 전반적 이해와 더불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생활유형을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가족의 역동적 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의례가 가족의 영속성, 결속감, 통합성, 유대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Schvaneveldt & Lee, 1983; Meredith et al, 1989), 따라서 가족의례는 가족치료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가족의례는 그 기능에 따라 관계의례, 사랑의례, 공동체의례의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Doherty, 1997). 관계의례란 가족을 결속시키는 일상적 의례를 말하며 가족식사, 아침저녁의 일과들, 통근이나 통학의례가 여기에 속한다. 사랑의례는 관계의 친밀감을 발전시키거나 가족 개개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는 의례이며 결혼기념일, 생일, 어버이날, 부부간의 성관계 등이 포함된다. 관계의례나 사랑의례보다 좀더 공적인 차원의 의례인 공동체의례는 가족보다 더 넓은 사회적 조직망을 연결시키기 위한 의도적 노력을 포함하며 결혼식, 장례식, 종교행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의례를 만들거나 수정할 때는 새로운 의례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목표가 진술되어야 하고, 의례가

어떻게 거행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형식이 다루어 져야 하며, 의례에서 거행되는 행동의 범주와 가족의 생각, 이미지, 신념을 나타내는 가족의 상징성, 그리고 의례를 행할 때 가족이 느끼는 감정들을 포함한 내용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Burr, 최연실 역, 1997, p. 377-389).

이상과 같이 미래가족에 대한 전망은 가족생활의 대안적 형태의 다양화, 인간관계 유형의 가족관계 중심으로의 회귀가능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미래가족의 가족관계 정립을 위한 가족의례 창출이 제시되고 있다.

Ⅲ. 가족학의 과제 및 전망

1. 가족학 연구의 목적과 과제

가족학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런데 인간이 누구나 접하고 생활하고 있는 가족생활은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사람들은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고 그래서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가족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 가족학에서 연구하고 다루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Duvall은 가족을 연구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이 자라난 가정에서 얻은 경험으로 알게 된 지식보다 더 광범위한 가족생활 전반을 알기 위함이다.

둘째, 가족생활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되고 잘못된 인식된 생각을 시정하기 위함이다.

셋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이거나 병적 편견을 시정하기 위함이다.

넷째, 가족이란 사회의 중요한 기초집단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가족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간발달의 과정을 알기 위함이다.

여섯째, 사회 제 조건의 변화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고 개인이 담당하는 가족을 올바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일곱째, 사회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보기 위함이다.

여덟째,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하여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이상의 Duvall에 의한 가족연구의 목적은 개인적 차원과 가족적 차원에서 미시적 관점으로 언급되었다. 이에 덧붙여 앞으로는 가족연구의 기초가 가족을 위한 국가적 정책의 지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한국가족학연구회, 1993).

이러한 가족학 연구는 앞으로 어떠한 과제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즘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는 각 학문 영역들의 경향은 순수학문 자체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보다는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실용학문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족학 연구의 동향은 가족제도, 가족형태, 가족구조, 가족기능 등의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이 점차 가족을 소집단으로 보고 가족성원의 상호작용적 측면에 중점이 옮겨지고 가족을 사회생활의 안식처로서 정서적 위안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에서 다시 최근에는 가족문제를 사회정책이나 국가와 연결시켜 재조명하려는 경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살필 수 있다. 이에 덧붙여 가족연구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천적 연구를 위하여는 이론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사회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한국가족학연구회, 1993, p. 32).

그 동안 가족학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던 부분들은 그때그때마다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으며 연구영역에 따라서는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꾸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맞이한 현시점에서 가족학분야에서 연구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필자는 대학현장에서의 경험과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이

를 크게 두 가지 영역, 즉 가족상담과 가족생활교육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물론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가족관계학회에서 발급되고 있는 가족상담사 자격증이나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증이 그 중요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혼란스러운 가치관,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가족들이 휘청거리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가족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이미 발생한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상담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돕고 문제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아직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생활교육을 통하여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가족생활교육

그동안 우리는 가족생활과 가족문제에 대하여 너무나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대응해 왔다. 사회변화가 매우 느리고 완만했던 시대에는 가족간의 문제나 세대간의 문제를 가족 안에서 그런대로 해결할 수 있었으며, 가족생활도 세대적 경험의 전수로 가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 및 여러 사회조건이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경험에 의한 세대적 전수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계속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평생 발달적 관점에서의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전생애주기에 걸쳐서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문제에 적합한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특히 잠재적인 갈등이 증가하고 역할과 가치관이 변화하며 이혼과 재혼이 증가할 것이므로 결혼생활향상 교육과 관계중결단계 교육,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교육에 관한 요구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중노년기 가족과 청소년 가족을 위한 교육 요구도와 성교육에 대한 요구도도 계속 높을 것이다.

미래사회는 지금보다 가족이 더 중요시되고 가족 문제의 예방과 가족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므로 가족생활교육의 전망은 밝다고 보여진다(최규련, 1997).

따라서 대학에서는 가족학 전공자들을 가족생활교육사로 키워내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또한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가족생활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가족생활교육의 개념과 내용을 명료화하는 작업과 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가족생활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조사가 필요하다. 즉 현재 평가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인 소표본, 자료의 단순분석 및 부적절한 개념화와 측정 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또한 누구에게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인가? 가족생활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가?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차이가 있는가? 즉 가족생활교육이 예방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자격을 갖춘 유능한 가족생활 교육자를 양성하고 확보해야 한다. 가족생활 교육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 ① 가족생활 교육자는 가족생활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가치나 기대를 이해하고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달아 가족생활 교육자 개인의 입장이 프로그램 실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민감한 주제들(예를 들면 성에 대한 영역)을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하고 참가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교육에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 ③ 상호작용적이고 반영적인 학습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
- ④ 일괄 교과과정이나 프로그램을 한 명의 독특한 청중의 요구, 흥미 및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 ⑤ 가족생활교육의 전달방법과 배경을 고려하고 확장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형태의 가족생활교육과 새로운 교육 기술(예: 컴퓨터,

상호작용 비디오)을 이용한 교육방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⑥ 가족 전체가 대상집단이 된다면 가족생활교육을 제공할 방법, 시간 및 장소를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⑦ 가족생활교육은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소외되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예: 저소득층 가족, 중노년기 가족 등)에도 관심을 가져 개인과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송정아 외, 1998, p.96-97).

Schvaneveldt와 Young(1992)은 다음 세대의 가족생활 교육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첫째, 가족생활 교육자는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임해야 한다. 전문가로서 가족생활 교육자는 사회변화의 개념을 파악해야 하며 사회변화의 차원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둘째, 가족생활 교육자는 잘 훈련받고 창조적이어야 하며 새로움을 유지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기꺼이 변화해야 하고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며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

셋째, 가족생활 교육자들은 이전에 빠르고 쉬운 답을 구하는 처방지향적인 사회풍조 속에서 전문가로서 신뢰를 얻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해 왔으며 문제 없는 완전한 가족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내는 실수를 범했다. 그 결과 가족들이 자신감과 유능감을 잃게 만들었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생활 교육자들은 가족의 판단을 존중해 주며 가족이 전문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가족생활 교육자들은 모든 가족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다섯째, 가족생활교육을 위해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생활교육이 가족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방안이기는 하지만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가족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사회체계에 기인하는 것일 때에는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가족과 인간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와 연락기구를 설치

하고 가족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부서에 압력을 가해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학자들은 가족이 탄력성을 가진 건강한 가족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

3. 가족상담

가족학 전공자들이 반드시 다루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역이 바로 가족상담 영역이다. 최근 수십 년간 가족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 중에는 가족을 배제한 치료적 접근은 그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김유숙, 2000).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급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사회 속의 인간관계 및 가족관계의 어려움은 더 큰 적응력을 요구하고 있다. 적용에 필요한 능력과 자원, 대처전략들을 갖기 위해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통해 개발하기도 하지만, 이미 문제가 발생했거나 위기를 넘어서 개인이나 가족들을 위해서는 가족치료 및 상담이 필요하다. 현재 상담을 공부하고 실시하는 분야로는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학, 간호학, 정신의학 등 다양하다. 그러나 가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가족분야의 지식을 갖추고, 관계를 중요시하는 가족학 영역에서의 접근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가족치료는 개인치료와는 달리 사람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 세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용태, 2000). 1950년대 이전에는 정신의학 쪽에서 개인상담을 주로 실시했으나 그 이후에 가족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개인치료 영역에서조차 가족치료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초기의 개인상담에서 가족 속의 개인을 인식함으로써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원으로부터 문제를 일으킨 일탈가족원, 가족의 정상적 위기상황까지 다양한 범위를 상담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상담은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학자의 치료를 요하는 정신병리 소유자보다는 이른 바 문제가족원이나 가족 위기를 다룸으로써 다른 가족원과 원활한 관계를 추구하고 가족해체 상황이나 가족스트레스 처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가족의 현재문제, 가족원이 바라는 목표, 가족의 욕구체계와 역동성, 가족자원의 정도 및 위기 이전에 가족이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를 파악하여 가족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가족상담을 통하여 가족의 역기능을 건전한 적응 방식으로 전환시키고 가족의 역할관계면에서 평형을 이루고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생활에 매우 필요한 제도이다(한국가족학 연구회, 1993).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 초반에 가족치료 이론이 소개되었고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1988년 한국가족치료학회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여러 분야에서 가족상담 및 치료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워크샵과 연수과정 등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가족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가족문제의 전문가로서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을 돕기 위하여 가족 전반에 관한 통합적인 지식 위에 상담가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 뿐 아니라 가족치료 이론과 상담 기법등에 익숙해져야 하고 충분한 실습과정을 거쳐 확고한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가족상담자 훈련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과 여러 가지 임상치료기법을 공부한다. 가족상담실에서 일면경(one way mirror)을 통해 치료의 시범을 볼 수 있다.

둘째, 상담장면의 녹화재생을 통해 상호작용 메시지 분석, 여러 문제를 교정 받을 수 있고 실제 연구의 객관적 자료가 된다.

셋째, 며칠간 집단 성원간의 집중적이고 연속적인 즉 마라톤식 집단치료 경험으로 훈련을 받는다. 이때 여러 가지 역할실험, 사이코드라마, 참관담기법을 사용할 수 있고 자기발견과 성숙에도 도움이 된다.

넷째, 내담자 가족과 직접 접촉하여 상담을 한다. 이때 슈퍼바이저가 함께 상담하는 방법, 훈련생이 상담하는 동안 계속 수정적인 피이드백을 주는 방법, 훈련생이 자기가 맡은 가족의 사례를 제시하고 토의하는 방법 등이 있다.

다섯째, 전문적인 상담자와 내담자가 의사소통하는 방법과 다양한 기법을 담은 비디오를 관찰 학습한다.

여섯째, 훈련생은 자신의 가족체계와 역동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본인 스스로 가족속에서 자신의 위치, 미해결된 감정과 상황의 정리가 가능하므로 상담기법 연습과 함께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된다.

일곱째, 상담자들이 팀을 이루어 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 면에서 효과가 있고 부족한 훈련생에게는 매우 유익한 경험을 제공한다.

현대사회는 가족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가족해체현상이 증대되고 있어 가족상담운동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건강한 가족과 원만한 인간관계 및 상호작용 방법을 교육하고 치료할 대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족상담 및 치료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즉 가족상담 분야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발전 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치료는 가족의 체계, 가족원의 가치관과 역사에 개입하고 있다. 따라서 그 가족이 처해 있는 문화나 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상담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을 상담하고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해 보아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병원 및 기타 기관들(예를 들면 청소년보호 및 지도기관, 소년원, 경찰서, 가정복지국 등)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셋째, 가족상담자가 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의 확대와 훈련이 요청된다.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임상심리학 전공자, 가족 및 아동 전공자, 인간발달 및 인간관계에 관심있는 전문인력들이 공동연구 및 공동치료팀을 구성함으로써 가족상담 영역이 더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간관계와 환경체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꾸준히 연구하면서 가족상담의 이론체계와 기법을 세련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가족상담 및 치료는 위기 개입과 문제와 증상이 가족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아울러 예방프로그램도 중요하다. 따라서 건

강한 가족의 특성연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예방과 치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문제의 재발이나 발생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한국가족학연구회, 1993, p. 392-393).

여섯째, 정보화사회에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가족상담 전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메일 상담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IV. 요약 및 결론

21세기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으며 대학에서의 학문 영역도 사회변화에 맞추어 변화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생활과학 분야는 어떻게 대처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지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가족의 변화와 미래가족의 전망, 가족학의 발전과제들을 살펴보았다. 가족학의 주 연구대상은 가족이므로 가족의 변화를 주시하고 가족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뿐 아니라 보다 건강한 가족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이 가족학을 연구하는 주된 목적이 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지난 30여 년 동안의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학의 과제를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형태나 기능면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핵가족의 보편화, 초혼연령의 증가와 출산력의 감소, 이혼 및 재혼의 증가, 편부모가족, 독신가족, 동거가족, 동성애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취업여성의 증가로 인한 부부역할의 변화, 여러 가족기능들의 사회로의 이전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가족의 변화양상이나 빠른 변화 속도는 가족을 취약하게 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가족해체 현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으며 앞으로의 가족에 있어서도 그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와 같은 가족해

체 현상의 증가나 독신가족의 증가, 자발적 무자녀가족, 계약결혼, 사이버 부부 등의 등장으로 가족의 소멸을 우려하는 사람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가족은 계속 존재할 것으로 본다.

셋째, 다양한 문제점이 잠재되어 여러모로 취약해진 가족을 보다 건강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족학 분야에서 해야 할 과제는 많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은 가족생활교육과 가족상담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생활교육은 가족이 위기에 이르기 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실시되는 교육으로 생각되지만 그 외에도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민감해야 하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재교육으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족학 전공자들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기를 뿐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되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족생활교육과 더불어 가족학에서 다루어야 할 또다른 중요과제는 가족상담인데 이는 다른 학문의 전공자들도 함께 연구하는 분야로서 여러 영역의 전공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팀웍을 이룬다면 클라이언트를 위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가족학 전공자들이 다른 학문의 전공자들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가족학 전반에 대한 단단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가족상담에 임한다면 개인상담과는 다른 가족관계 측면이나 가족 역동성 등에서 강점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를 흔히 정보화사회 또는 여성의 세기라고도 하는데 미래사회를 예측하는 많은 학자들이 유망직종으로 지목하는 것들 중의 하나가 바로 가족치료사 또는 가족상담자이므로 가족학분야에서는 이 때를 대비하여 실력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가족변화, 미래가족, 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1991). 한국통계연감.
- 김용태(2000). 가족치료 이론. 학지사.
- 김유숙(2000). 가족상담. 학지사.
- 김정옥 외(1999). 새로 보는 결혼과 가족. 학지사.
- 서선희(1999). 1970년대 이래의 한국 가족의 변화와 앞으로의 변화방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권 1호, 147-163.
- 송정아·전영자·김득성(1998). 가족생활교육론. 교문사.
- 유영주 외(1995). 결혼과 가족. 경희대학교 출판국.
- 이영숙·박경란·전귀연(1999). 가족문제론. 학지사.
- 전병재 외(1994). 위기에 선 가족, -한국가족의 변화와 전망-. 다산출판사.
- 조선일보(1999. 8. 22). 3쌍 결혼할 때 1쌍 이혼.
- 중앙일보(1998. 9. 24). 「국민의식조사」下. 사회문제- 성의식, 5.
- 최규련(1997). 가족생활교육의 과제와 전망.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
- 출판집단 사잇소리 엮음(1993). 이혼 또 하나의 선택. 여성사.
- 한국가족학연구회 편(1993). 가족학, 도서출판 하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편부모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대책. 정책보고서: 95-07.
- Burr, W.(1997). Family science. 최연실 외 공역, 새로보는 가족관계학. 도서출판 하우. 377-389.
- Doherty, W. J. (1997). The Intentional Family. New York : Addison - Wesley Publishing Company, Inc.
- Meredith, W. H., Abbott, D. A., Lamanna, M. A. & Sanders, G.(1989). Rituals and family strength : A three - generation study. *Family Perspective*, 23, 75-84.
- Schvaneveldt, J. D. & Lee, T. R.(1983). The emergence and practice of ritual in the American family. *Family Perspective*, 17, 137-143.
- Schvaneveldt, J. D. & Young, M. H.(1992). Strengthening families : New horizons in family life education. *Family Relations*, 41.